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토론회 지원 필요성 알리고 방안 논의
패권 선점 위한 정부 지원 절실

대한민국 대표 배터리 도시인 포항시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항시가 주관하고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희 포항시남구 울릉군 국회의원과 김정재 포항시북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자위위원장, 국민의 힘 김기현, 이달희 의원 등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또한 예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 배터리 도시인 포항시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차전지PD가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을,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이사 배터리 소재 기업 현황 및 정책 지원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를 좌장으로 박준모 법무법

인 율촌 변호사, 박재정 산업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박규영 포스텍 배터리공학과 교수, 장인원 예코프로지사 글로벌자원실장, 한미향 포스코퓨처엠 커뮤니케이션실장 등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가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과격적인 지원

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환경시설 투자와 전기료 상승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포항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토론회가 이차전지 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별법을 토대로 전력비용 및 환경처리시설 지원, 생산보조금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순천시

모범납세자 450명 선정

순천시는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기여한 개인 납세자 450명을 '순천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순천시 모범납세자들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 납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 서한문과 함께 2만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이 지난 19일 우편으로 발송됐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울산시

제19회 울산 화학의날 기념식

울산시는 지난 21일 오후 롯데호텔 울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이성통 시의회 의장, 산업부 관계자, 조영신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화학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울산 화학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화학 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등 화학 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울산의 주력 산업인 화학 산업의 인지도 향상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

경북도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경북도가 내륙 최초의 청소년 해양 교육시설인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173억원(국비 98억원, 지방비 75억원)이 투입돼 상주시 낙동면 낙동1길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대지면적 8684㎡, 연면적 3423㎡)로 건립됐다.

교육원 내에는 수영장(25m 4레인), 잠수풀(폭 5m, 길이 8m, 깊이 5m), 강당, 교육실, 의무실 등 체계적인 해양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이 갖춰졌고, 최대 100여 명의 숙박이 가능한 22실의 생활관도 조성됐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외통위 의원, 'APEC 정상회의' 점검

외통위 소속 의원 13명 경주 방문
현장 중심 준비태세 집중 점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경주를 방문해 '2025 AP 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김석기 외통위위원장(국민의힘·경주시)을 비롯해 김영배 간사(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김건 간사(국민의힘·비례대표) 등 외통위 소속 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KTX를 이용해 경주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정상회의장으로 예정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찾아 APEC 준비지원단으로부터 회의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상회의의 주요 일정과 함께 기반시설, 경제, 문화, 수송, 숙박, 의료 등 부문별 준비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낙영 경주시장의 안내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하이크와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상황이 상세히 보고됐으며, 외통위원들은 이에 대해 열린 논의를 이어가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의원들은 HICO 내부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의 운영 계획과 동선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 정상회의의 참가자 및 관계자들이 이용할 숙박시설을 방문해 안전 대책과 편의시설 확보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 여건을 확인하며, 현장 중심의 준비 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부산시, 국제금융센터지수 24위 차지

역대 최고 점수 728점 기록

부산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7)에서 119개국 중 24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인 728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고 성적이며 2023년 3월 대비 13계단이나 상승한 결과로, 아시아에서는 9위에 해당한다.

부산시는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가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등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과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

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3000억원 규모의 '미래성장벤처펀드'를 조성해 부산 지역 벤처 펀드 투자 비율을 높였으며 올해 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에도 선정돼 연내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지역 투자 생태계를 크게 개선했다.

또 앞으로 9년간 2조 3000억원 규모의 '부산 산업전환 녹색 펀드'를 조성해 기존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돕고, 기업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청송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했다.

청송군, 특색있는 '관광거점도시' 조성

로컬리즘 관광 트렌드 발맞춰

청송군은 올해 다양한 관광 시책사업을 추진해 함께하는 문화관광, 풍요로운 관광거점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기존의 유명 관광지에서 벗어나,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특색을 즐기는 '로컬리즘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청송군은 차별화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 새로운 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산지 관광지 조성사업',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호텔과 글램핑장을 갖춘 이색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더욱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송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한 청정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교육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전남 유니크베뉴' 6곳 신규 지정

인서리공원, 담빛예술창고 등 선정

전남 광양 인서리공원, 담양 담빛예술창고, 고흥 남포미술관 등 6곳이 전남 유니크베뉴(Unique Venue)로 새롭게 지정됐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마이스(MICE) 행사 적지로서의 전남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니크 베뉴 공모에 나서 모두 6곳이 신규 지정됐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지난

2023년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여수 예술마루, 나주 3917마중, 구례 쌍산재 등 20곳(현재 17곳 운영 중)을 유니크베뉴로 지정해 마이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 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규 유니크 베뉴는 담빛예술창고, 아쿠아플라넷 여수, 인서리공원, 남포미술관, 장성 경이궁한옥스테이 & 캠핑카라반, 구례 반야원 플라타너스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창원특례시

국제교육도시연합 정례회의 참가

창원특례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2025년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정례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정례회의에는 13개국 84개 교육 도시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시아 최초 IAEC 상임이사 도시이자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의장 도시인 창원특례시는 이번 총회에서 상임 이사 도시 회의와 정례 회의에 참가해 지난해 활동 사항과 올해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